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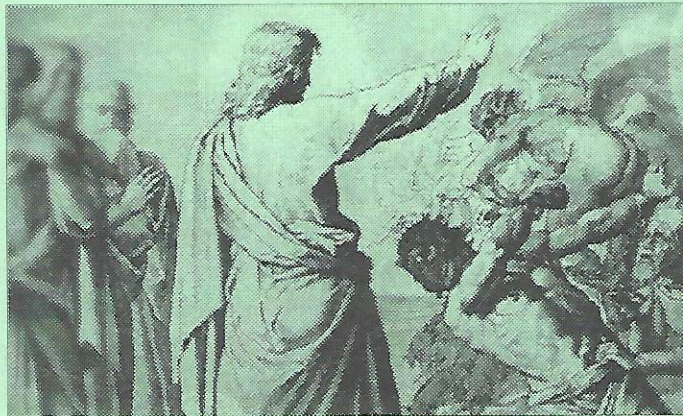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4주일

제35권 10호(나해) 2015년 2월1일

[묵상]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율법학자들과는 다르게 권위가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

남들에게 뽐뽐거리고 군림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권위,

곧 예수님의 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랑을 느꼈던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인간을 끔찍이 사랑하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너무나 가없이 여기시는,

하느님의 인자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들인 것이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트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오후 1:00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3: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생)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현호 요한, 송근섭 팔렌티노, 이용식 베드로, 현시영 요셉, 김기준 안젤라, 변해경 올리나, 박동옥 요셉, 김용팔 다두, 권분남 콜롬바, 이필수,이석진 가브리엘, 이용관 베드로, 조점봉, 고준희 제임스, 정점례 올리아나, 최창용 스테파노, (생)정하상바오로 & 정율리아 & 정점마 & 정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장영진 안토니오, 김대니엘 다니엘 & 김양금 안나, 최석원 안드레아 & 박미나 로셀리나, 박브렌든 안토니아 & 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세준 요셉, 이경범 크리스토퍼 & 정은정 베로니카, 이용무 스테파노 & 이정숙 스테파니아 & 이성연 크리스티나, 김정석, 오마우라 수녀, 오창근 베드로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신명기(Deuteronomy)18,15-20

화답송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어서 와 엎드려 경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
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브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
도 나를 떠보았다.”○

제 2독서 1 코린도(Corinthians)7,32-35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
에게 빛이 떠올랐네.○

복 음 마르코(Marco)1,21-28

영성체송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세신

제3장

‘성령세신운동’의 빛과 그늘

2) 가계(家系) 치유

또한 그들이 살아생전에 자신에게 준 상처나 부정적 영향을 발견하고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기도를 통해서 산 이와 죽은 이들이 서로 통교할 수 있다는 가톨릭 교회의 신앙, 곧 ‘성인들의 통공’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것이 ‘가계 치유’라는 이름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가계 치유’라는 용어는 정확성이나 구체적인 개념 없이 잘못된 원죄 해석이나 무속 신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일관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그 핵심은 조상들의 죄가 후손에게 직접 유전(遺傳)되어서 그 죄 때문에 후손들이 필연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거나 불행(미신 행위, 알코올 중독, 자살, 자연 유산, 병, 비정상적 성 행위, 우울, 정신 질환, 불안, 공포심 등)을 겪는다는 것이다. ‘가계 치유’의 추종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후손들에게 대물림을 하면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조상들의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가정의 고질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특별한 양식의 기도를 요구한다. 우선 가계도를 작성하여 해당 가정과 조상의 공통적인 문제를 알아내고, 후손들이 조상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며, 가문을 위한 구마 기도를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상들의 죄를 씻으려면, 수적으로 많은 미사 봉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그들은 구마 기도에만 매달리면서 식음을 전폐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한 의료적 도움마저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계 치유’는 무엇보다도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세례성사의 은총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된다. 곧 원죄와 모든 본죄, 그리고 모든 죄벌까지도 용서받아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라면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계속>

☺ 서로 인사 합시다. ☺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208	208	208
봉헌	257	259	257
성체	303	279	303
파견	240	193	240

성령과 악령을 구별하는법, 겸손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회당에서 악령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의 세력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들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만 정의로운 것처럼 정의를 외칩니다.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사랑을 외치며 교회를 비난하고, 지도자들을 비난합니다. 자신들이 정의롭지 못한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것만을 침소봉대합니다.

‘교황님이 다녀가셨는데 왜 한국 교회는 바뀌지 않느냐?’고 외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바뀔 것 같으면, 우리 교회는 수도 없이 탈바꿈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난받고 죽음을 겪으셨는데도 세상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더러 바꾸라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키려면 자신부터 사랑을 실천해야만 사랑의 교회가 됩니다. 자신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더러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악령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운동을 하는 어느 사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자처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수녀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영성의 대가이신 십자가의 성 요한 이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끈질기게 요청하는 바람에

요한 신부님은 수녀님의 체험을 글로 적어 보내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지 않느냐? 이것은 영의 체험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체험하거나 신비를 체험한 사람은 겸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신비를 체험한 후 저술 작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하느님의 신비에 비하면 자신이 언급한 하느님에 관한 모든 진술은 ‘지푸라기와 같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신비체험의 영적 식별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입니다. 자신이 먼저 겸사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악령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 조규만주교/ 서울대교구 총대리

놓치다

공이 눈앞으로 날아오면 두려움에 미리 눈을 감거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곤 했지. 눈을 뜨고 있어야 피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맞더라도 왜 맞는 줄 알 수 있을 텐데.

공처럼 날아드는 생의 일들,
받을 수도 있는 기회 앞에서
얼마나 자주 눈을 감곤 했을까.

◆ 이영 아네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신덕레 테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도복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사벳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오늘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은 없습니다. '해외파전 한국선교사' 후원을 위한 2차 헌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신부님 사제 서품일을 축하드립니다.

2월 1일은 본당 신부님의 23회 사제 서품일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신부님 은혜에 감사 드리며 신부님으로 탄생하신 날을 축하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고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님 봉헌 축일

성탄 후 40일째 되는 날에 지내는 '주님 봉헌 축일' (2월2일)은 성모 마리아께서 정결례를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이날 전통적으로 1년 동안 전례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성합니다.

- 축성할 때(봉헌 축일) 개인이 따로 구입한 초를 가져와서 축성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사시간: 2월2일(월)저녁7시30분(새벽미사 없음)

◆ 재의 수요일에 사용할 성지 가지 회수

오는 2월18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재의 수요일'에는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쓰이는 재는 지난해 나눠드린 성지가지를 태워서 사용합니다.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가지를 2월15일(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요셉회 설날 대잔치

- 일시 : 2월15일(주일)12시30분~4시30분
- 행사내용 : 추억의 노래부르기, 제기차기 윷놀이
- 참가대상 : 요셉 회원이 아닌 분도 65세 이상이면 부부 동반 환영합니다. 음식과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연락처 : 정기은비오 ☎(310)780-2789

◆ 바오로딸 도서선교

- 일시 : 2월 7일~2월 8일 미사 전후
- 장소 : 성당 앞마당 또는 친교실
- 내용 : 신자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바오로딸 수녀들이 한국에서 와서 책, CD, DVD를 전시, 판매하오니 많은 관심과 구입바랍니다.

◆ 103위 성당 봉사활동 프로그램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Volunteer 시간을 받을 수 있는 성당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발족 합니다. 매주 일요일 9시30분 미사 전,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친교장에 있는 의자와 책상 먼지를 닦아내는 활동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비치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추후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2월1일(주일) * 소공동체 : 김밥(\$4)
* 주일학교 : 테리야끼치킨 & 잡채(7학년)
- 2월8일(주일) * 토복1반 : 미역국(\$3)
* 주일학교 : 스파게티(6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강숙경	강순복	강인모	구자운	김 준		성전헌금	강미순	강숙경	강인모	구자운	김 준	김병조						
	김병조	김인성	김재운	김재키	김주량	민기남			김주량	민기남	민순섬	박상준	박진수	서성용						
	민순섬	박상준	박완철	박종열	박진수	서성용			서재원	안민수	오세원	오수인	유영균	이미에						
	서재원	안민수	오상준	오세원	오수인	유영균			이우성	이인석	이현주	이형삼	장영진	정남형						
	이근태	이우성	이인석	이현주	이형삼	장영진			정열모	정정현	정혜영	주대중	최미열	최태훈						
	전정자	정남형	정열모	정정현	정혜영	주대중			황지영											
	최미열	최수복	최영신	최태훈	한창주	황지영														
합계:\$5,595								합계 : \$2,015												
주일미사 헌금 : \$3,016																				

◆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순 피정

- 일시 : 2월27일(금)~3월1일(주일)
- 장소 : 꽃동네
37885 HWY. 79. S. Temecula, CA 92592
- 참가비 : \$60 (1/18~2/8 등록시), 이후 \$85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 교장

☎(310)709-3343

◆ 주일학교 사순 피정 학부모설명회

- 2월 8일 (주일) 오후1시 정전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제목: 마르코복음 (Mark), 노트 제공 (2월 8일)
- 대상: 주일학교 모든 학생
- 필사 마감: 3월 29일까지 담당 교리교사에게 제출
- 시상: 부활 대축일 미사중 (4월5일)
- *시상은 전권을 필사한 아이들에게만 한함

◆ 한국학교 2 학기 개학 및 SAT II 한국어 시험 준비반 개강

- 기간 : 2월 1일 ~ 6월 14

◆ 제 4회 <백범 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 주최: 미주한국학교연합회 (KOSAA)/ 백범 김구선생 기념 사업 협회, 재단 법인 김구 재단
- 대상: 미주한국학교연합회 산하 한국/한글 학교 재학 중인 4~12학년

◆ 제 40회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 시험 실시일 : 4/25/2015(토) 09:00 ~ 16:00
- TOPIK 1 : 09:00 ~ 11:00
- TOPIK 2 : 12:00 ~ 16:00 (중간 휴식 30분 포함)
- 접수기간 : 01/08/2015 ~ 02/14/2015(토)

◆ 2015년 제19회 SATII한국어 모의고사

- 자격 : 7 학년 이상 한국학교 재학생 및 일반 동포 자녀
- 신청서 마감 : 2015년 2월15일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장
☎213-700-9399 103skcecks@gmail.com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미주 평의회

- 제목 : 봉헌을 위한 준비 특강
- 일시 : 2월 16일 (월), 17일 (화) 오후 6:30
- 장소 : 성마실 한인천주교회 본당지하
- 강사 : 김문상 디오니시오 신부님 (가톨릭 신문사)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유철희 바오로 991-4838 2 / 14(토) 오후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2/14(토) 오후 6시 성당강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2/13(금) 오후7시30분 성당 1층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김충섭 마틴 530-3010 2/14 (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크리스 아가토 991-8558 2/14(토) 오후5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2/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용 스테파노 625-3312 2/20(금)오후 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데레사 634-6923 2/13(금) 오전11시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이상철 크리스토퍼 818-6903 2/14(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욱 율리아 404-1607	조화숙안젤라 & 박카타리나 2/9(월) 오후 7시 성당강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주영애 겐마 749-3151 2/14 (토)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P. V. 남정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PV구역 합동 반모임 2/14(토) 4시 남정철 베네딕도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합동 반모임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합동 반모임
	4	이귀란 아테스 617-3568	합동 반모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회의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 단체모임	오후1시
--------	------

124위 시복특집< 20 > 황일광 시몬(1757-1802)

“황일광 시몬은 백정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계급이 조선에서는 어떻게나 멸시를 당하는지, 거기 속한 사람들은 종들보다도 더 낮게 다뤄지는 지경이다. 그들은 인류 밖에 있는, 품위를 잃은 존재로 다뤄진다.”

- 달레 「교회사」 중에서 -

충청도 홍주, 백정의 아들 황일광 시몬은 세상의 멸시를 받으며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놀랄 만한 지능과 열렬한 마음, 매우 명랑하고 솔직한 성격을 주셨습니다. 1792년 황일광은 이존창을 찾아가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동생 황차돌과 함께 고향을 떠나 멀리 경상도로 이주했습니다. 교우들은 그의 신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황일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 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

1800년 황일광은 정약종이 살던 경기도 광주로 이주하여 황사영, 김한빈 등 여러 교우들과 친밀하게 교류했습니다. 이제 그의 열심은 날로 더해져 모든 이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약종이 한양으로 이주하자 황일광도 동생과 함께 한양 정동의 주막집 행랑채로 옮겨 뭇나무를 헤다 팔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힘닿는 대로 교회 일을 돕는 가운데 주문모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신자들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신유박해 때 황일광은 뭇나무를 하러 나갔다가 체포되어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조금도 겁을 내지 않고 포졸들에게 명료한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나리들께서 저를 남원 고을에서 살기 좋은 옥천 고을로 옮겨 주시니,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남원’은 ‘나무’를, 옥천의 ‘옥’은 ‘감옥’을 의미하는 것으로, 황일광은 감옥으로 끌려가는 순간조차 특유의 재기를 발휘하며 신앙에서 비롯된 곤경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포도청과 형조의 문초와 형벌에도 황일광은 고상하고 거룩하고 자유롭게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관리들은 비천한 신분의 황일광이 자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회유마저 거부하자 화가 나서 더욱 혹독한 고문을 자행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굳건하게 참아 견딘 그는, 형관의 추상같은 호령에도 굴복하지 않고 천주교를 ‘성스러운 학문’(聖學)이라면서 “저는 천주교 신앙을 올바른 길로 생각하여 깊이 빠졌습니다. 만 번 더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겠으니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다리 하나가 으스러지도록 잔인하게 매를 맞고 동료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황일광은 고

향인 홍주로 이송되면서도 명랑함을 잃지 않았지만, 혹여 유혹이 일까 두려운 마음에 아내와 아들만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802년 1월 30일 홍주에 도착한 황일광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45세였습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 엮음

[예비 신자 궁금증 105가지]

성령 묵상회에 갔다 왔는데 성령을 받으면 어떨 땐 악마가 보인다고 하는데 저에게 악마가 보일까 무섭습니다. 그리고 간혹 잘못된 경우, 성령이 내리기는커녕 악마에게 썩기도한다고 하던데요. 교회에 구마경이라는 것이 있다면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교회 전통 안에는 구마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사제가 되기 전에 구마품이라는 것을 받았습니 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악한 영을 쫓아내십니다. 악한 영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악령이나 악마라고 하면 괴기 영화에 나오는, 머리에 뿔 달리고 무섭게 생긴 괴물이며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해를 가하고 우리가 “아! 무서운 사탄이잖아! 도망가야지.”라고 바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악마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 십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악한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하지 않고, 오로지 어떻게 접근하는 지만을 알려줍니다. 악마는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합리적으로 유혹합니다. 이처럼 악마는 우리와 가장 친숙한 모습으로, 친숙한 방법으로, 친숙한 목소리로, 친숙한 논리로 다가옵니다. 친구의 목소리로, 가족의 목소리로, 나 자신의 목소리로, 나의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악마가 첫째 제자 베드로의 목소리로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동이나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면 이미 우리는 악령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악한 영을 물리치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영적인 투쟁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구마경인 것입니다.

◆ 교리상식

기도묵상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바람과 다를 때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 가경자 테클라 메를로